

着實히 擴大되는 佛의 電力輸出

값싼 電力과 環境上의 이유로 11個國에서 利用

輸出實績의 7.4% 占有

全體電力의 70% 이상을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인근 제국으로의 전력수출이 착실한 추세로 신장되고 있다.

프랑스電力公社(EdF)의 보고에 의하면 재작년의全體發電電力量은 3,456억KWH로서 그중 이탈리아, 스위스, 서독, 영국 등 인근제국으로의 전력수출은 255억KWH를 기록, 실로全體電力의 7.4%를 차지하는 실적이며, 그 금액도 51억 1,400만 프랑이 된다.

작년의 실적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EdF에 의하면 실적은 더욱 신장되어 8%는 확실시된다.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되려 하고 있는 프랑스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은 국내에너지는 물론 국제수지의 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魅力的인 저렴한 電力·11個國에서 利用

1987년 12월 현재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설비용량은 51基, 約 4,400만KW이다.

철저한 표준화생산에 의해 건설비의 코스트다운화를 도모했기 때문에 발전코스트는 네덜란드에 이어 1KWH당 34 centime으로 무척 저렴하다.

때문에 건설코스트가 높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도 프랑스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편이 득이라는 이유로 동구권을 포함한 11

개국이 이 저렴한 「프랑스製 電力」을 구입하고 있다.

그 수출선의 최대 고객은 이탈리아의 124억 KWH로서 총수출전력량의 과반수에 육박한다.

이탈리아는 작년 11월의 국민투표로 원자력발전의 건설중지를 결정했지만, 이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고민하는 同國의 에너지사정을 국민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소박한 의문이 생긴다. 이대로의 상태라면 이탈리아의 전력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프랑스에의 전력의존도도 높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탈리아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은 것은 스위스, 영국, 서독의 順이며, 또 양은 많지 않으나 오스트리아, 유고 등도 스위스를 경유하여 송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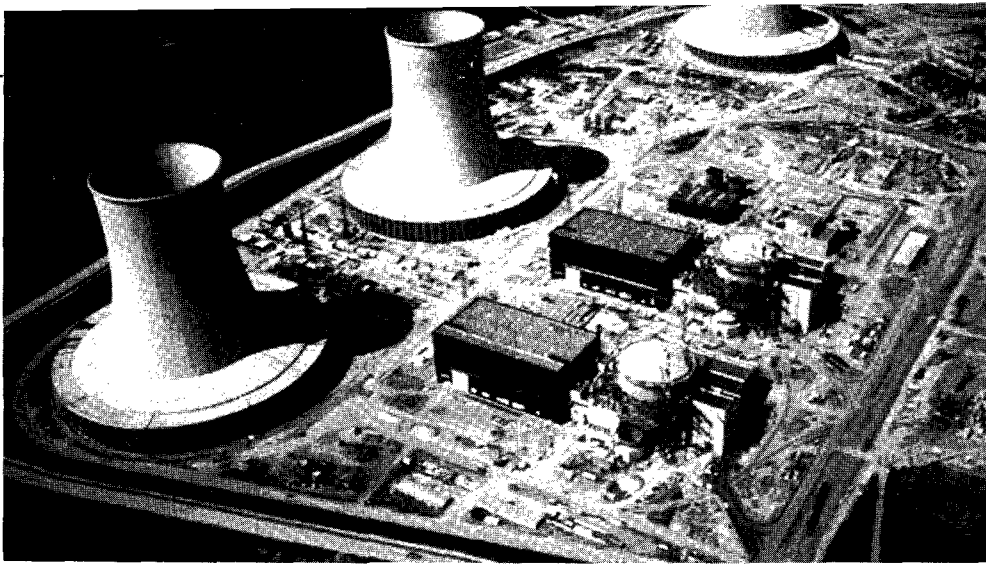
2, 3年後에는 英國市場이 拓

영국에 대한 전력수출은 재작년부터 도버해협에 용량 200만KW의 해저케이블이 부설된 것을 계기로 프랑스의 전력이 영국 본토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게 되었다.

영국이 이처럼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는 것은 電力코스트 때문이다.

영국은全體電力의 70%를 석탄으로 공급하고 있는 歐洲에서도 우수한 석탄화력국이다. 그러므로 전력요금은 구주각국중에서도 비싸서 산업계는 물론 일반국민으로 부터도 값싼 전력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었다.

EC가맹각국 간의 전력유통을 추진하는 유니



페데(UNIPED=유럽發送電共同體)도 「2, 3년후에는 이탈리아를 앞지르고 영국이 프랑스의 최대고객이 될 것」으로 분석·평가하고 있는 정도이다.

서독과 오스트리아는 에너지안전보장체제의 관점에서 電力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 모두 파이프라인에 의해 소련에서 천연가스의 공급을 받고 있으나, 전부터 미국이 천연가스를 소련에 너무 의존하는데 대한 危懼를 지적하고 있었다.

양국 모두 그 부분의 국제적 환경을 중시하여 동맹국인 프랑스에서의 전력수입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완성된 원자력발전을 한번도 가동하지 않고 폐지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오스트리아는 동맹국으로 부터의 전력수입은 국가적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위스도 송전망을 정비, 그 효과적인 이용에 노력하고 있다.

環境上 利點도 再評價

전력을 수출한 정도로 원자력발전이 확대되어 있는 프랑스이지만, 새로 시논B원자력발전소 4호기(91만 9천KW)가 송전을 개시하는 등 앞으로도 신규운전에 들어갈 예정인 발전소도 있다.

EDF로서는 국내의 원자력발전 규모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구주전력의 「盟主」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고 싶은 점에서 미루어 보아 프랑스의 전력수출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EDF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저렴한 전력」과 함께 「환경상의 청결성」이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프랑스원자력청(CEA)의 카프론장관은 작년 11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대규모 원자력발전의 개발에 의해 환경으로의 이산화이온 방출을 대폭 저감시킬 수 있었다고 언명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카프론장관은 원자력발전의 환경에 대한 청결성에 대해 1980년부터 1986년 사이에 환경중의 이산화이온이 반감된 것을 실증, 「이 성과는 다수의 종래 발전소를 폐쇄시킴과 동시에 원자력시설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해졌다. 다른 구주각국에서는 원자력의 보급이 늦고, 이산화이온의 저감은 20%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여, 산성비 문제의 열쇠는 원자력발전이 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프랑스의 전력수출은 정치체제를 초월하여 확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